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아름답게

2019. 9 | Vol. 296호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해오름요양원

한결 같은 마음

제3차 화엄신중 천일기도 봉행

법왕사에서는 2019년 기해년을 맞이하여 천일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17일(음력 6월 15일) 입재하여 2022년 4월 12일(음력 3월 12일) 회향하는 이번 천일기도는 기도를 통해 소원을 성취하는 대기도법회로 1천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올립니다.

⦿ 천일기도의 발원문

지혜와 자비의 근원이신 부처님 감사합니다.
모든 중생과 더불어 공덕 나누며 지혜와 용기와 원만성취를 함께 하겠나이다.
촛불을 켜고 바른 자세로 앉아있는 의식적인 행동의 중요함보다는 두 손 합장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바라보며 고백하고 시인하는 이 마음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하신 공덕으로 벗겨지고 씻겨진 참 모습을 원하오니 태우시고 씻기시어 육신이 거하는 또 다른 내가 지워지고 벗겨져 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하사 모래알 같은 중생들이 팔만사천 부처님 법문 속에 몸과 정신을 맡기고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기억하시고 불러주셔서 제 마음밭을 고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인도함 받기를 원하오니 이 기도의 방을 통해 안정된 마음으로 삶이 변화되는 과정을 돕게 하소서. 자비의 손길과 빛으로 그 마음을 쪼이시고 지극한 법향으로 지난 과오의 업을 지워 주소서. 신심으로 이 기도에 동참하게 하시고 동참하신 모든 이웃에게 부처님의 자비하신 은공이 들게 하시고 운행하는 행로 행로마다 부처님 함께 하시어 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답게 본이 되는 방정한 자세 갖추게 하시고 진정한 빛과 법향을 풍기는 참된 불자로 거듭나게 하소서.

여기, 백고좌 법회도량 법왕사 불자님들이 천일기도의 염을 세웠습니다. 기도동참 불자님들의 중 소구 소원이 자비하신 부처님의 가피지 묘력으로 원만성취될 수 있기를 합장발원 올립니다.

천일기도 안내

- **입　　재** : 2019년 **7**월 **17**일 수요일 (음 6월 15일)
- **회　　향** : 2022년 **4**월 **12**일 화요일 (음 3월 12일)

천일법회 : 합동재일은 매월　하루, 보름 오후 2시 본당 2층에서 약찬게 49독 후 축원

- **천일염주** : 천일법회시 천주를 제작할 30알의 염주와 염주 주머니를 드립니다.
- **기 도 비** : 입재시 10만원, 매월　하루 3만원(30개월)
- 하루, 보름 특별축원 오후 2시부터 2시간 30분간 주지스님 집전(대중스님 전체 동참)
- 10차 기도시 합동천도재 봉행, 영가 1위당 10만원

※ 1000일기도 회향 때까지 천주를 완성하신 불자님께는 1000일기도 회향 기념 수계를 드립니다.

※ 입재시 100알의 염주와 1000주 염주를 만들 염주 줄을 드립니다.

Contents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아름답게

2019
9
Vol. 296호

04 깨침의 향기
새벽예불과 아침형 인간 · 원공당 정무 대종사

06 비슬산방
부처님께 예불은 어떻게 합니까? · 실상 주지스님

08 부처님 이야기 – 초기 원형불교 자료에 근거(42)
고따마 부처님 전생 십바라밀 이야기(정진바라밀–전편) · 영일스님

12 고승열전
한국 철학사의 새벽 원효(元曉) – 2

16 명찰 순례
통일신라의 승려 의상이 창건한 고운사(孤雲寺)

22 해오름 요양원 – 함께 알면 좋아요
'안구건조증' 똑똑하게 예방하는 방법은?

26 법왕사소식

28 법왕사게시판

30 해오름소식

31 해오름게시판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 **등록일**_2012년 9월 14일 | **등록번호**_대구 라 07721 | **발행처**_대한불교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www.bubwangsa.or.kr | **발행일**_불기 2563(서기 2019)년 9월 1일 발행 | **통권**_296호 | **종무소**_T. (053)766–3747·9088 F. (053)767–6095 | **발행 겸 편집인**_실상스님(권오범) | **인쇄인**_강영도 | **편집위원장**_원인스님 | **편집위원**_영일, 상찰, 자행, 자윤, 박창모 | **기획·제작·디자인**_다산미디어 (053)424–3322

법왕사에서 발행하는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매달 불제자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여러분께 전해지기를 발원합니다.

새벽예불과 아침형 인간

원공당 **정무** 대종사

'계명축시(鷄鳴丑時)' 란 첫닭이 울 무렵인 축시(丑時)를 말함이니 요즘 시간으로 말한다면 새벽 한 시에서 세 시 사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산사(山寺)에서는 오전 3시가 되면 도량석 목탁소리가 새벽을 일깨우며 또 하루의 시작을 알립니다. 새벽의 깊은 잠에서 깨어난 범종(梵鐘)이 28번 울리면 산승은 '아침종송'에 작은 원(願)을 담아봅니다.

원차종성변법계(願此鐘聲遍法界)
철위유암실개명(鐵圍幽暗悉皆明)
삼도이고파도산(三途離苦破刀山)
일체중생성정각(一切衆生成正覺)

원하옵건대 이 종소리 법계에 두루 퍼져
철위산의 깊은 어둠 다 밝아지고,
삼악도(三惡道)의 고통과 도산지옥 무너져
모든 중생 바른 깨달음 이루어지이다.

세간(世間)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말 가운데 '아침형 인간'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일러 아침형 인간이라고 하는지 알아보았더니 '아침 일찍 일어나서 활동하는 사람이 오후에 활동하는 사람보다 사회생활에서 전진적(前進的)이고도 성공적(成功的)인 삶을 살아가는 확률이 높다' 는 것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생산적이고 활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수행자는 전형적인 '아침형 인간'

아침형 인간이라 해서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는가 했더니 산승(山僧)이 일평생 살아왔던

삶과 조금도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계명축시에 일어나 부처님께 새벽예불을 올리고, 여명(黎明)이 밝을 때 조용히 앉아 참선삼매(參禪三昧)에 들어 삼계(三界)와 하나가 됩니다. 사시(巳時)가 되면 '위성도업응수차식(爲成道業應受此食)' 으로 수도(修道)를 성취하기 위한 법공양(法供養)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루 한 끼 사시공양(巳時供養)만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시가 되면 부처님께 마지공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오후에는 울력과 참선을 하고 저녁예불을 모신 다음 저녁 9시가 되면 잠자리에 드는 것이 이 산승을 비롯한 모든 스님들의 일상생활이니 따로 아침형 인간이라 말할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아침형 인간이라고 합니다. 대기업체의 고위 임원과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일찍 잠자리에서 일어나 아침시간을 잘 활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소비 향락적인 야행성 생활 버려야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아침형 인간으로 변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비적이고 쾌락적인 저녁 활동을 버려야합니다.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는 것, 컴퓨터 게임과 같은 생활을 멀리해야 합니다.

둘째, 숙면(熟眠)을 취할 수 있도록 항상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야 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숙면을 취하면 맑은 정신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지위나 체면, 인간관계로 인해 피할 수 없는 자리가 하나 둘이 아닙니다. 자칫하면 속 좁은 사람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만큼 주변에 널리 알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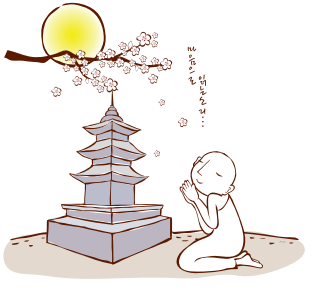
넷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생산적이고 활력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십시오. 자칫하면 작심삼일(作心三日)이나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나기 쉬운 만큼, 철저하고 치밀하게 아침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마(睡魔)를 물리치지 않은 사람 치고 도업(道業)을 이루거나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침의 이른 시간을 지배하여 일과 가정, 그리고 여가(餘暇)의 균형을 통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불제자(佛弟子)의 삶이란 본질적으로 수행자(修行者)의 삶입니다. 계명축시에 일어나 부처님께 새벽예불을 올리고, 독경(讀經)과 참선(參禪)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어떤 기도(祈禱), 어떤 수행보다도 큰 공덕이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는 불제자의 복(福)된 삶을 우리 함께 누리도록 합시다.

부처님께 예불은 어떻게 합니까?

실상스님 / 법왕사 주지

가까운 사찰이 있으면 아침저녁으로 절에 가서 부처님께 예배해야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가정에 불단을 형편껏 설치하고 부처님을 모셔 예배 하거나, 액자 또는 경전을 모셔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절에서 하듯이 차를 올릴 때는 다게(茶偈)를 한 후에, 향을 올릴 때는 오분향례(五分香禮)를 한 후 예불을 모시고 발원문을 부처님께 낭송하고, 발원문대로 이루어지도록 정근을 모신 후 시간에 따라 천수경등 경전독송이나, 108 참회, 좌선을 한 후 끝내면 됩니다.(朝夕禮佛)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떻게 배웁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것이 경전입니다. 항상 경전을 가까이에 두고 열심히 읽어서 가르침을 깨닫고 법회가 열리는 곳을 수소문해 조금 멀더라도 꼭 찾아가서 법문을 듣도록 해야 합니다. 경전은 주위에서 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하되, 일반인들은 동국 역경원에서 나온 '불교성전' 이나 국민서관에서 나온 '우리말 팔만대장경' 정도를 늘 수지했으면 합니다.(看經求法)

염불과 참선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염불을 할 때는,

첫째, 부처님의 상호를 생각하고.

둘째, 부처님의 덕성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셋째, 부처님의 덕성을 찬탄하며.

넷째, 부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다섯째, 부처님과 같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참선을 할 때에는 자세를 바로 갖고 마음을 고요히 해야 합니다. 다리는 결가부좌 또는 반가부좌를 하고 허리를 곧게 펴고 턱은 당겨서 입술은 꼭 다물고 혀끝은 말아서 입천장에 대고 손은 한손 위에 한손을 포개서 엄지손가락끼리 맞대고 눈은 반쯤 뜨고 반쯤은 감은 자세를 갖추고.

첫째, 몸을 관찰하고.

둘째, 감각을 관찰하고.

셋째, 마음을 관찰하고.

넷째, 진리를 관찰해야 합니다.(念佛參禪)

참회와 발원은 어떻게 합니까?

잘못을 뉘우치고 큰 원을 발하는 것은 보살의 삶입니다. 우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懺) 남에게도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悔)이 종교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잘못을 부처님께 고백하고 죄업이 씻어지도록 참회 예배를 해야 합니다.

원은 크게 세워야 합니다. 옛날에 수행자가 어린아이였을 때 동무들과 함께 길가에서 놀고 있었는데 저만치서 당시의 부처님과 제자들이 오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때 동무들은 "나도 저 제자들처럼 되어서 훌륭한 부처님을 모셔 봤으면 좋겠다" 고 생각했고, 수행자는 "나도 저 부처님처럼 되어서 훌륭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야지" 했답니다. 그 결과 수행자는 부처님이 되었고, 동무들은 제자가 되었답니다.(懺悔發願)

보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에게 베풀어 주고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은 보살의 원력입니다.

불자는 항상 능력에 따라 베풀고 남을 이롭게 해야 합니다. 내 수중에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베풀 수 있냐는 이가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돈이 안드는 보시 일곱 가지를 소개합니다.

1. 부드러운 눈으로 사람을 대함.
2. 부드럽고 미소띤 얼굴로 사람을 대함.
3. 좋은 말로 사람을 대함.
4. 예의 바르게 사람을 대함
5.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함
6. 다른 이에게 자리를 양보함
7. 집 없고 길 잃은 사람을 재워줌.

이렇게 보시를 하면서도 나는 베풀었다는 생각이 없어야 합니다.

〈계속〉

빠알리 자료에 근거한 고따마 부처님 전생 십바라밀 이야기 (정진바라밀-전편)

영일스님 / 법왕사 법사

지난 연재글(제41편)에서는 고따마 붓다께서 전생의 어떤 시기에 '세나까senaka' 라는 현자였을 때, 왕을 계율과 선법에 확립시키고, 나라의 많은 일들을 지혜롭게 처리하며, 심지어 추론을 통해 가죽 부대에 뱀이 들어있음을 알아내어 한 바라문을 위험에서 구하는 내용을 담고있는 '최상위 지혜바라밀' 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정진바라밀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그런데 지혜바라밀과 마찬가지로 '정진바라밀' 에 대한 내용도 '전생 바라밀행장' 에는 포함되어있지 않다. 그래서 '불종성경' 과 '자따까' 의 주석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상위 정진바라밀' 에 해당되는 '마하자나까 자따가' [KN-Ja 22, n. 539(mahājanaka-jā)]의 주석서 내용을 중심으로 보살이 어떻게 정진바라밀을 실천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이 때 보살은 '마하자나까' 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 그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왕국을 되찾기위해 돈을 벌러 배를 타고 바다건너 먼 나라까지 가게된다. 가는 도중에 먼 거리를 지나치게 빨리 항해한 결과 배가 좌초되지만 7일간 지치지 않고, 헤엄을 치며 사투를 벌인다. 그 와중에 천신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건지고, 미틸라로 옮겨지게 된다.

이 부분까지 정진바라밀의 내용이다. 이 다음 부터는 정진바라밀보다는 오히려 출가바라밀을 비롯한 다른 몇가지의 바라밀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진다. 즉, 아버지의 왕국인 미틸라국에 도달한 마하자나까는 결국 왕위를 되찾아 나라를 다스린다. 그런데, 나중에 왕위를 비롯한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하게된다. 그런데, 정진바라밀을 포함하는 이 '마하자나까 자따까' 는 내용이 길다. 그래서 전편과 후편으로 나누어 연재하는데, 이번 호(42번 연재글)에서는 전편을 싣는다.

1. '마하자나까 자따까' 원문게송과 그 주석서에 나오는 배경 이야기 [1]

어느 때, 스승(세존)께서 기원정사에 머물고 계시면서 '위대한 출가' 에 관한 말씀을 하신다. [2]

어느날 비구들이 법회장에 모여서 여래의 '위대한 출가' 를 찬탄하면서 앉아있었다. 이 때 스승(세존)께서 오셔서 '무슨말을 하기 위해 모여있는가?' 라고 묻자, 비구들은 '여래의 위대한 출가를 찬탄하고있다.' 라고 답한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과거에도 여래는 '위대한 출가' (mahā-abhinikkhamana)를 하였음을 언급하며 전생의 출가바라밀 이야기를 하신다.

옛날에 위데하국(videha-rattha)의 미틸라(mithila)성에 '마하자나까' 라는 왕이 왕국을

통치 하고 있었다. 그 왕에게는 두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리타자나까와 뽈라자나까이다. 왕은 그들중에서 큰 아들은 총독-섭정의 자리를 주고, 작은 아들에게는 장군의 자리를 주었다. 나중에 마하자나까 왕이 죽자, 큰 아들인 아리타자나까는 왕이되고, 둘째아들 뽈라자나까는 총독-섭정이 되었다. 그런데, 한 신하가 아리타자나까 왕에게 가서 총독이 왕을 죽이려한다고 모함을 한다. 왕은 처음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으나, 계속된 모함에 결국 동생 뽈라자나까를 체포하여 족쇄를 채운 후, 왕궁에서 멀지않은 곳에 살게하고 보초를 세웠다.

동생 뽈라자나까는 이렇게 생각했다 :

"내가 만약 형의 적이라면, 족쇄가 나의 손발에서 풀리지 말고, 문도 열리지 말라. 그러나 만약 내가 형의 적이 아니라면, 족쇄가 나의 손발에서 풀리고, 문도 열려라." 라고.

그 순간 족쇄가 조각 조각 부숴지고, 문도 열렸다. 그러자 그는 탈출하여, 국경지방의 한 마을에서 거처를 마련하였다. 국경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고 시중을 들었다. 그리고 왕도 또한 그를 체포할 수 없었다. 동생 뽈라자나까는 점차적으로 국경지방을 장악하고, 큰 무리를 만든 후, "나는 이전에는 형의 적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적이다" 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인채 미틸라로 진군하여 성의 외곽에 캠프를치고 머물렀다. 미틸라 성에 살고있는 군인들은 '동생이 왔다' 라는 소리를 듣고, 코끼리와 말등의 짐승을 데리고 그 동생에게 왔고, 다른 도시의 사람들도 또한 왔다. 동생 뽈라자나까는 형에게 전갈을 보냈다 :

"나는 예전에 당신의 적이 아니였지만, 지금은 적이다. [왕실의] 일산을 주든지, 아니면 싸우자" 라고. 이 때, 형이면서 동시에 미틸라국의 왕인 아리타자나까는 그 소리를 듣고 싸우기를 바라면서 왕비에게 이렇게 말했다 :

"왕비여, 전투에서는 내가 승리할지 남이 승리할지 알수가 없다. 만약 나에게 위험이 생기면, 당신은 태아를 보호해야할 것이다." 라고. 그리고 큰 무리의 군대에 둘러싸여 성을

---

1) 여기의원문자료는미얀마6차결집본의로마자온라인출판본을근거로한다: CST4: KN-Jā.22 (mahā-np), n. 539_(mahājanaka-jā)-aṭṭk. 그리고번역은직역과의역을혼용하면서, 그내용을요약한다. 그리고이자따까가'최상위정진바라밀'에관한내용을담고있다는점은'불종성경'과'자따까'의다음의주석서에서언급하고있다: KN-Bvṃ1(ratana-caṅkamana-kaṇḍa), vs. 76-77-aṭṭk.]=[KN-Jā-aṭṭk-nidāna-kathā-(1. dūre-nidānakathā)].

2) 이자따까의주석서에의하면, 이'마하자나까자따까'는사실'정진바라밀'이아니라'출가바라밀'을설명하기위해설해진것이다. 그런데흥미롭게도, '불종성경'과'자따까'의주석서들은'마하자나까자따까'를'최상위정진바라밀'의예로써설명한다. 부처님의전생바라밀이야기는특정바라밀을언급할때사실거기에는다른바라밀의요소들도함께포함된경우가많은데, 여기의'마하자나까자따까'도같은맥락에서이해할수있을것이다여기에서는이러한'불종성경' 주석서의기록을근거로'마하자나까자따까'가담고있는바라밀의여러요소들중에서정진바라밀의내용을강조하여살펴본다.

나갔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동생 뽈라자나까의 군사들이 그 왕 즉, 아리타자나까를 죽이게 되었다. 그러자 "왕이 죽었다" 라고 온 성에 일제히 큰 외침이 일어났다.

왕비도 또한 이 소리를 듣고 왕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서둘러서 황금같은 보석들을 챙겨 가방에 넣은 후, 머리에 더러운 천을 펴고 위에서부터 쌀을 뿌리고, 더러운 옷을 입고, 몸을 추하게 만든 후, 손가방을 머리에 이고, 아침일찍 성을 나갔는데,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 때 왕비는 북문으로 나왔는데, 예전에 어디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길을 알지못해서 전혀 방향을 정할 수가 없었다. 단지, "깔라짬빠라는 도시가 있다" 라는 소리를 듣고, "깔라짬빠 도시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라고 물으면서 한 회관에 앉아있었다. 그런데, 그 때 왕비에게 임신된 존재는 보통의 존재가 아니라, 바라밀을 완성한 대인(보살)이 임신된 것이다. 그래서 그 [보살의] 힘에의해 사까-제석천의 거처가 흔들렸다. 제석천은 살펴본 후, 그 이유를 알고, "그 왕비의 배속에 임신된 존재는 큰 공덕을 갖추었으니, 내가 가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덮개가 있는 수레를 만든 후, 거기에 침대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마치 늙은 사람처럼 수레을 운전하면서 그 왕비가 앉아있는 회관의 문에 서서 "깔라짬빠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라고 물었다. 그러자 왕비는, "아저씨, 내가 갑니다." 라고 답했다.

마부로 변신한 제석천은, "아주머니, 그럼 수레에 올라 앉으시요." 라고 말한다.

다시 왕비는, "아저씨, 저는 만삭이어서 수레에 오를 수 없습니다. 나는 뒤에 따라갈 것이니, 대신 이 손가방을 놓을만한 공간을 내어주십시요." 라고 말했다. 마부로 변신한 제석천은, "아주머니, 무슨 말입니까? 수레를 운전하기위한 지식을 갖춘 사람들중에서 저와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워말고 올라 앉으시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왕비는, "좋습니다." 라고 답했다.

제석천은 왕비가 수레에 오르려 하는 순간, 자신의 신력에 의해 바람이 가득찬 가죽주머니처럼 땅을 들어 올리고, 수레의 맨 뒤끝에 닿게 하였다. 왕비는 수레에 올라 침대에 누운 후, "이것은 천신일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천상의 침대에 눕자마자 잠에 떨어졌다.

사까-제석천은 약 30 요자나(약 110km)정도를 가서 어떤 강에 이르자, 왕비를 깨운 후, "아주머니, 내려서 강에서 씻은 후, 침대 머리맡에 한 벌의 옷이 있으니 입으시오. 그리고 수레의 안쪽에 밥이 조금 있으니 그것을 드시오." 라고 말했다.

왕비는 시키는 대로 한 후, 다시 잠에 들었다. 그런데 저녁때 쯤에 깔라짬빠 도시에 이르자, 왕비는 문, 전망대, 그리고 담장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묻기를:

"아저씨, 여기가 어떤 도시입니까?" 라고

하였다. 제석천이 "깔라짬빠 도시" 라고 답하자, 왕비는 놀라서 "미틸라에서 깔라짬빠 도시까지 60요자나 (220km)정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다. 제석천은, "그 정도 되지만, 나는 직선로를 알고있다." 라고 답했다.

제석천은 남쪽문 가까이에서 왕비를 내리게 한 후, 깔라짬빠의 성에 들어가라고 말한다. 그리고 자신은 그 앞에서 사라져서 제석천의 하늘 거처로 돌아갔다.

왕비는 다시 홀로 회관에 앉아있었다. 그 때 명성이 자자한 스승이고, 깔라짬빠 도시에 살면서, 종교의식을 연구하는 한 바라문이 500명의 젊은 제자들에 둘러싸여 목욕하려 가는 도중에 멀리서 보니, 그 아름답고, 우아한 자태를 품은 왕비가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 때, 왕비의 배속에 있는 대인보살의 힘에 의해 즉시 그 바라문에게 여동생에 대한 애정이 일어나서 젊은 제자들을 밖에 두고, 홀로 그 회관에 들어간 후, "자매여, 그대는 어느 마을에 사는가?" 라고 물었다.

그러자 왕비는, "아저씨, 저는 미틸라의 아리타자나까왕의 왕비입니다." 라고 답했다.

바라문이 왜 여기에 왔는지를 묻자, 왕비는, "왕이 동생인 뿔라자나까에 의해 죽어서, 두려워하며, 태아를 보호하기위해 왔다." 라고 답한다. 이어서 바라문이 여기에 어떤 친척이 있는지를 묻자, 왕비는, "없다." 라고 답한다. 그러자 바라문이 말한다: "그럼 다른 것 생각하지 말라. 나는 북방의 고명한 바라문이며, 명성이 자자한 스승이다. 나는 그대를 여동생의 자리에 앉힌 후, 돌볼것이다. 그대는 '오빠' 라고 나에게 말한 후, 발을 잡고 큰 소리로 울부짖어라." 라고.

왕비는 시키는대로 바라문의 다리를 잡고 크게 울부짖었다. 또한 둘 모두 서로를 붙들고 울부짖었다. 그 때 그 바라문의 학생들이 큰 소리를 듣고, 달려들어와 무슨일인지를 묻자, 바라문은, "이 여인은 나의 여동생이다. 내가 멀리가고, 없던 때에 태어났다." 그러자 바라문의 제자들은, "이제 여동생을 보았으니, 슬퍼하지 마십시요, 스승이시여." 라고 한다. 바라문은 제자들에게 덮개가 있는 수레를 가져오게 한 후, 왕비를 거기에 앉게한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부한다: "제자들이여, 가서 브라흐마니 부인에게 나의 여동생이 있다고 말하고, 모든 의무를 다하라고 말하라." 라고. 그리고 왕비를 집으로 보냈다.

그들은 집에 가서 브라흐마니 부인에게 그대로 말하였다. 그 때 그 부인은 왕비를 목욕시키고, 침대를 준비하여 앉게 하였다. 그리고 그 바라문도 또한 목욕한 후에 와서, 식사시간이 되자, 이제 여동생이 된 왕비와 함께 식사한 후, 집안에서 왕비를 돌보아 주었다.

왕비는 오래지 않아서 황금색을 띤 아들을 낳았는데,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 '마하자나까 동자' 라고 이름 지었다.

〈마하자나까 자따까 전편 끝.
다음 이야기는 후편에 계속 됨〉

한국 철학사의 새벽 원효(元曉) – 2

원효의 사상과 그에 대한 평가

원효 당시의 신라 불교는 이미 전래된 지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세월 동안 신라의 불교는 그 당시 신라의 정치적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발전하여 독특한 양상을 이루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우선 처음으로 신라에 받아들여지고 기능을 한 것은 업설을 바탕으로 한 인과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고는 그 이전의 무교적 사고방식을 대체하면서 세계와 인간의 일을 설명하는 새로운 원리로 자리 잡았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대체는 무교적 세계관에 의해 지지받고 있던 기존의 권위를 해체하는 데도 기여하였다. 당시 신라는 본래의 왕족에 대신하는 이계 왕권이 등장하여 본계의 왕권을 누르고 정통성을 확립해 가던 시기였다. 자연 불교의 업설 등은 무속적 세계관을 해체하면서 그 무속적 세계관에 의해 하늘에서 내려온 고귀한 혈통이라는 것에 의해 권위를 부여받고 있는 본계 왕실의 권위를 해체하는 것이다.

또한 현실의 왕권을 불교의 전륜성왕이라는 불교를 옹호하는 세속의 지배자에 대응시킴으로써 그 권위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일어난다. 아울러 그 전륜성왕의 세상에 출현할 미륵불에 의해 이루어지는 용화회상이라는 이상적인 세계는 이 지상에 그러한 세상을 이룰 수 있으며 이루어야 한다는 것으로 국가의 구성원을 이끌어 어떤 목적으로 지향하게 하는 힘을 지닐 수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왕실의 주도 아래서 도입된 불교는 자연 왕실로 대표되는 국가의 옹호라는 목적에 밀접하게 연관된 형태로 발전한다. 우리는 그러한 경향을 호국불교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그 당시의 대부분 왕실과 귀족 가문 출신이었던 출가인들은 왕권과 국가의 발전을 위한 활동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들의 활동에 의해 그 이전의 주요한 사상형태이었던 무교적 세계관에 바탕한 의식들이 수계법회라든가 점찰법회 등의 불교적 의식으로 대체된다. 또한 불교를 통해 당시의 필요에 부응하여 새로운 사회윤리를 제시하려는 노력도 구체적으로 진행된다. 그 가운데 주목해야 할 것은 원광에 의해 주어진 세속오계이다. 그 가운데는 '산목숨을 죽임에는 경우를 가려서 하라' 는 정도의 불교적인, 그것도 매우 완화된 불살생의 계율이 하나 들어 있을 뿐 나머지는 그 당시 신라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세속적인 규범인 것이다. 이는 당시의 승려가 꼭 불교를 고집하지 않고 오히려 국가의 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의식하고 있었다는 좋은 예라 하겠다.

원광의 세속오계와는 좀 다른 맥락이지만 당시 신라 불교에 계율을 중시하는 풍조가 일반적이었던 점도 주목되어져야 한다. 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각도에서 말한다면 바로 업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즉 나쁜 업을 짓지 않기 위한 금지의 조항들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계율은 업과 윤회의 기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시되는 것이다. 이러한 계율사상의 흥기는 바로 절대적 왕권과 그를 중심으로 한 귀족층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한다. 지금 현실에서 어떤 지위에 있는가는 전생의 업에 의해 결정된다는 방식의 비본질적인 인과응보설의 적용에 의해 현실의 지배구조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아무튼 이러한 왕실과 승려들의 활동에 의해 신라의 불교는 급격하게 전파되어 거의 모든 국민이 불교를 믿게 되는 흥성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이런 외면적인 흥성의 뒤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은 불교의 흥성으로 말미암아 많은 유학승들에 의해 불교가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져 연구됨에 따라 더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우선은 인과응보설의 적용에 의한 현실의 합리화는 더 이상 불교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다. 원래 불교는 현실의 삶을 합리화하는 성향을 지닌 것도 아니요, 특권계층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모든 중생들이 차별 없이 최고의 목표인 열반에 동참할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그런데 왕실과 귀족 중심으로 불교가 전파됨으로써 일반 대중들은 단순한 불교 교화의 대상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으며, 궁극적인 종교적 구원에 동참할 길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수직적인 차별을 정당화하는 인과설에 의해 단순히 현실을 인정하게 하는 도구로서 불교의 업설이 쓰이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점차로 깨인 대중들의 의식은 좀 더 주체적으로 종교적 행위를 하고자 한다. 또한 현실의 불평등에 대하여 갖는 대중들의 불만은 단순히 현실을 합리화함으로써 제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일종의 종교적 보상을 통하여 대중에게도 귀족과 동등한 종교적 권리를 인정함에 의하여 현실의 불평등에 대한 불만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 대중의 주체적 움직임의 자연스런 추세로 보거나, 지배층의 이익으로 보거나 이제는 인과응보설에 의존한 현실의 합리화만으로서는 더 이상 국가 구성원의 총체적인 화합을 이끌어 내기 불가능한 시점에 신라 불교는 와 있었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불교의 이해가 깊어지면서 자연 드러나게 되는 불교의 초세간적인 성격과 당시 신라 사회의 요구 사이의 갈등이 있다. 불교는 인도의 산물이며, 인도의 아열대적인 기후 풍토와 독특한 사회여건을 바탕으로 이룩된 불교는 동북아시아의 치열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혈연을 중시하는 사회적 여건에 적응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더구나 불교는 인도의 사상사 가운데서도 초세간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그러한 흐름에 속한다. 물론 인도에서도 불교는 브라만교의 세속적인 경향에 대응하면서 많은 부분 세간적인 요소를 그 안에 포용하는 틀을 갖추게 되도, 중국을 통해 전래되는 과정에서 이런 점들이 강화되었지만 그렇다고 하여 근본적인 성격이 변한 것은 아니다.

도입 초기에는 당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측면만 집중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기능을 하였지만, 차츰 불교에 대한 이해가 깊어감에 따라 자연 불교의 본래적인 모습이 드러나면서 많은 문제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불교의 근본정신을 유지하면서도, 모든 국가 구성원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여야 할 통일 전야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그 이념을 제공하는 그러한 불교로 새롭게 나아 할 시점에 도달한 것이다. 이런 각도에서 본다면 원광 등이 행한 불교를 통한 사회윤리의 제시 등은 깊은 교학적인 바탕이 결여된 임시적인 대응책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다음으로 당시의 불교가 지니고 있었던 큰 문제는 다양한 불교 교리를 통일적으로 설명하는 문제였다. 불교는 수많은 경전을 지니고 있으며 그 경전들마다 같은 문제에 대하여도 서로 다른 말이 있는 예가 허다하다. 그것은 본디 불교가 대기설(對機說), 방편설(方便說)이라는 성격을 지닌 데 그 원인이 있다. 고통

속에 있는 중생의 자질, 취향, 그가 놓인 여건 등을 감안하여 거기에 알맞은 방편으로 주어진 것이 부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다. 목표는 하나, 고통에서의 해탈이지만 그에 도달하는 수단은 수없이 많을 수 있다. 건강체를 회복한다는 목표는 하나지만 앓고 있는 병의 양상에 따라 무수히 치료 방편이 있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논리이다.

그러나 어쨌든 서로 다른 가르침이 불교 안에 함께 하는 이상, 왜 그것이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가, 그러면서도 어떻게 전체적으로는 통일을 이루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어야 할 필요성은 있다. 그리고 그러한 작업은 여러 종파들에 의하여 교판이라는 것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여기서 우리는 앞으로 논의할 원효의 화쟁과 대비하기 위하여 교판의 성격을 음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교판이란 불타의 다양한 가르침을 어떤 기준을 통하여 구분하고 재배열하여 봄으로서 불교를 통일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그것은 대체적으로 어떤 가르침을 최고의 가르침으로 놓고자 하는 종파의 요구에 의하여 성립된다. 따라서 교판이란 불타의 가르침을 수직적으로 서열을 매기는 작업을 통하여 통일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교판은 불교를 통일적으로 보려고 하는 시도이지만, 거기에는 거꾸로 불교를 통일적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다. 단적으로 그것은 다른 교판들을 의식하고 이루어진 것이다. 즉 다른 가르침에 대한 자신들이 받드는 가르침의 우위를 선양하려는 의도 자체가 이미 다른 교판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이것은 교판들끼리의 다툼을 필연적으로 예고한다. 그것은 불교를 통일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임과 동시에 타 종파에 대한 자신의 우위를 내세우기 위한 논쟁의 도구이기도 하다. 여기에 교판을 통한 불교의 통일적 이해의 한계가 있다.

원효 당시의 신라에 여러 종파들이 난립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종류의 불교 이론들은 거의 다 소개되어 있었다. 그리고 많은 유학승들이 적극적으로 중국의 불교를 배워 옴으로써 신라의 불교 수준은 중국 못지않은 것이었다. 따라서 종파 사이의 다툼이 심각하게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불교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그것을 전부인 양 하는 사람들의 편견이 불교의 전체적이고 통일적인 이해의 장애가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종파가 성립되어 그들 사이의 대립 갈등이 벌어지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신라의 불교적 상황은 비교적 여러 종파의 교판들을 이론적으로 비교하고 검토하며, 그것들을 제 3자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고 하겠다.

통일신라의 승려 의상이 창건한 고운사(孤雲寺)

고운사(孤雲寺)는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등운산에 있는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의 승려 의상이 창건한 사찰로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본사이다.

서기 681년(신문왕 1년)에 의상(義湘)이 창건하여 고운사(高雲寺)라 하였다. 그 후 최치원(崔致遠)이 승려 여지(如智)·여사(如事)와 함께 가운루(駕雲樓)와 우화루(羽化樓)를 건립하고 이를 기념하여 최치원의 자(字)를 따서 고운사(孤雲寺)로 이름을 바꾸었다. 헌강왕 때는 도선(道詵)이 약사여래석불과 석탑을 안치하였고, 948년 운주(雲住)가 중창하였다.

대웅보전

가운루

1018년(현종 9년) 천우(天祐)가 대웅전·약사전·극락전·적묵당(寂默堂)·설선당(說禪堂)·동별실(東別室)·서별실(西別室)·관음전·금당(金堂)·백련당(白蓮堂)·회운당(會雲堂)·청풍당(淸風堂)·문수전(文殊殿)·양로당(養老堂)·백련암(白蓮庵) 등을 중창하였다. 극락전에 봉안한 관음상은 천해(天海)가 꿈에서 본 것과 똑같은 불상을 송도 대흥산(大興山)에서 찾아내어 고운사로 옮겨 봉안한 것이라고 한다.

1482년(성종 13년) 석가여래불상을 안동 갈라산(葛羅山) 낙타사(駱駝寺)에서 옮겨 와 대웅전에 봉안하였으며, 1646년(인조 24) 소영(昭影)의 사리탑을 건립하였다. 1668년 극성(克成)·승묵(勝默)·덕종(德宗) 등이 가운루를 중수하였고, 처순(處淳)이 천왕문(天王門)을, 설행(雪行)이 봉황문을 신축하였다.

1670년(현종 11년) 숭해(崇海)·묘선(妙善)·성준(性峻)·인준(印峻) 등이 명부전을 신축하고 시왕상(十王像)을 조성하였으며, 종헌(宗憲)과 설휘(雪輝)는 영각(影閣)을 짓고 영정을 만들어서 봉안하였다. 1681년(숙종 7년) 천왕문을 중수하였고, 1683년 관헌(灌憲)·인잠(印岑)·선초(善初)가 팔상전(八相殿)을 신축하였으며, 1686년 4월 명부전을 중창하였다.

1695년 도청(道淸)과 선조(禪照)가 극락전에 아미타불과 대세지보살상을 봉안하여 이전의 관음상과 함께 삼존불상을 구비하였다. 행옥(幸玉)은 설선당을, 태운(泰運)은

적묵당을 중건하였고, 선특(禪特)과 성담(性談)은 동별실을, 성관(性觀)은 서별실을 중수하였다. 또, 태눌(泰訥)은 청풍당을 중건하였고, 승하(勝下)는 응향각(凝香閣)을, 의율(義律)과 의잠(義岑)은 백련당을 중수하였다.

1724년(영조 즉위년) 법존(法存)·지훈(智勳) 등이 운수암(雲水庵)을 창건하였고, 1729년 신유한(申維翰)이 사적비를 세웠다. 1744년 어첩봉안각(御帖奉安閣)을 건립하였으며, 1797년 의암(義巖)이 백련암을 중창하였다. 1803년(순조 3) 4월 적묵당과 서별실이 화재로 불타 없어지자 1804년 2월 문찰(文察)이 중건하였고, 1812년 의암이 운수암을 중건하였다.

1835년(헌종 1년) 2월 백련당·금당·관음전·군포고(軍布庫)·직사고(直舍庫)·영전 등이 화재로 모두 불타 없어지자, 나라에서 홍종호(洪鍾浩)에게 명하여 만송(晩松)·호암(虎巖)·수열(守悅) 등과 함께 대웅전과 금당을 중건하게 하였다. 같은 해 12월 운수암이 불타 없어지자 1838년 함홍(涵弘)이 중건하였고, 1868년 눌암(訥庵) 등이 만성제(晩惺齊)를, 해송(海松)이 우의당(禹儀堂)을 건립하였다.

1899년 포운(抱雲)·혜은(惠隱) 등이 가운루·우화루·동별실·적묵당·연지암(蓮池庵)·천왕문을 중수하였고, 1901년 만선(滿船)과 추산(悉山)이 운수암의 해운루(海雲樓)를, 1902년 연수전(延壽殿)을 건립하였으며, 1904년 포운 등은 금당을 중수하였다.

1906년 안동·예안·의성·지례·선산·금산·용궁·비안·군위·의흥·청송·진보·순흥·봉화·영천군 등에 있는 사찰에 대한 관리를 종무원(宗務院)에서 부여받았다. 1912년 30본산(本山)의 하나가 되었으며, 1913년 2월 사찰령(寺刹令)에 의하여 고운사 본말사법(本末寺法)이 시행되면서 경상북도 내의

극락전

46개 사찰을 말사로 관장하였다.

1924년 주지 만우(萬愚)가 약사전을 중수하고 대정암(大定庵)을 창건하였으며, 1935년 주지 영호(泳鎬)가 대웅전을 중수하고 가운교(駕雲橋)를 만들었다. 1936년 명부전과 선열암을 중수하고 천왕문을 옮겨지었다. 또한, 1934년에는 불교전문강원을 개설하였고, 안동 포교당·와룡 포교당·의흥 포교당 등을 두었다.

현재는 의성·안동·영주·봉화의 4개 시·군, 54개의 말사를 관장하고 있다. 현존하는 당우로는 대웅전·극락전·관음전·명부전·금강문·가운루·적묵당·우화루·동별실·서별실·금당·회운당·고운대암(孤雲大庵)·고금당(古今堂) 등 총 25동이 있다.

소장된 중요 문화재로는 보물 제246호인 의성 고운사 석조여래좌상과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28호인 고운사 삼층석탑,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51호인 고운사 가운루,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470호인 의성 고운사 연수전, 사적비, 사보(寺寶)로 전해지고 있는 오동학촉대(烏銅鶴燭臺)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여러 차례 화재로 불타 없어진 후 중수된 가운루나 각각 18세기, 20세기에 세워진 사적비나 연수전과는 달리 석조여래좌상과 삼층석탑은 도선이 조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층석탑은 현재 나한전 앞에 자리 잡고 있다. 2층 기단(基壇) 위에 3층의 탑신(塔身)을 올렸으며, 아래층 기단에는 희미한 안상(眼象) 무늬가 보이고, 위층 기단에는 기둥 모양이 조각되어 있다. 탑신은 1층 몸돌에 비해 2층부터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각 층의 몸돌 모서리마다 기둥 모양의 조각을 두었다. 약한 경사가 흐르는 지붕돌은 네 귀퉁이에서 치켜 올림이 크지 않고, 밑면에 1층은 4단, 2·3층은 3단의 받침을 각각 두었다. 꼭대기에는 노반(露盤)주 01), 복발(覆

만세문

일주문

鉢)주 02), 뒤집혀진 앙화(仰花)주 03) 등을 올린 머리장식을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석재가 많이 닳아 있고, 아래층 기단이 특히 심하다. 통일신라의 일반적인 양식을 따르고 있지만, 줄어든 규모나 지붕돌의 조각양식 등에서 시대가 조금 내려간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 통일신라 후기의 작품으로 추측된다.

대웅보전

석가모니불과 문수보살, 보현보살을 모시고 있는 고운사의 큰법당이며 1992년도에 완공된 50평 규모의 전각이다. 대중의 조석예불과 사시불공 등 모든 의식과 법화가 이루어지는 고운사 신앙의 중심지이다. 법당 안에는 신중단과 조사진영을 모신조사단, 선망조상의 위패를 모시는 영단이 있다.

극락전

아미타부처님과 관세음, 대세지 두 보살을 모시고 있는 법당이다. 현재의 대웅보전이 신축되기 전까지 고운사의 큰법당 역할을 하던 유서 깊은 건물로 소박하면서 절제되고 또한 엄중한 기상을 엿볼 수 있다.

약사전

약사전에는 약사여래부처님을 주불로 모신다. 도선국사께서 조성하신 석불(보물 제246호)은 균형잡힌 몸매와 인자한 상호, 비교적 완벽한 보존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고운사의 모든 불상 가운데 가장 오래 되었다.

천왕문

나한전

나한전은 응진전 또는 영산전이라고도 불리우는데 16나한을 봉안하였으며 그 가운데는 석가모니불을 모셔 놓았다. 이 건물은 원래 현 대웅보전 자리에 있던 대웅전으로 조선 중기에 세워졌다. 건물을 이전하면서 16나한을 모셨고 전각의 이름도 바뀌었다. 불상은 우리나라에 보기드문 지불(紙佛)로 매우 원만한 상호를 보여준다.

가운루

최치원이 지었다고 우각이며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건축물 중의 하나로 꼽힌다. 계곡위로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다시 나무기둥을 세워 건물을 지었다.

고운사에 가면 매우 흥미로운 벽화가 있다. 극락전 벽면에는 한 마리의 호랑이 벽화가 그려져 있다. 계단 맨 위에서 벽화 속의 호랑이 눈을 쳐다보면서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면 그 호랑이가 사람을 따라 시선을 옮기면서 끝까지 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때 호랑이 등줄기의 골을 표현한 선이 시선에 따라서 처음에는 무척 곧게 보이다가 차츰 굽어져서 나중에는 완전히 활처럼 굽게 보이는 특이한 현상을 볼 수 있어 방문객들의 흥미를 끌고 있다.

극락전 벽면 호랑이 벽화

눈의 뻑뻑함과 극심한 이물감,
'안구건조증' 똑똑하게 예방하는 방법은?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영향과 PC, 스마트폰 등 디지털 단말기 사용의 일상화로 안구건조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안구건조증 환자들은 안과를 찾아 치료를 위해 인공눈물이나 안약을 처방 받아 점안하게 되지만, 보존적 치료만 이루어져 완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인공눈물과 안약만이 능사가 아닌 안구건조증의 근원적 해결책으로는 안구건조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생활습관 형성과 예방법 숙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아래에서는 안구건조증의 원인과 증상, 예방법까지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자.

안구건조증이란?

안구건조증은 눈물샘 기능 저하로 인해 눈을 촉촉하고 부드럽게 유지하는 눈물이 제대로 생성되지 못해 눈의 피로와 뻑뻑함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노화로 인한 눈물 부족으로 안구건조증을 호소하곤 했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 사용률 증가, 냉난방 일상화로 인한 건조한 환경 등으로 젊은 층 사이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안구질환이 됐다.

안구건조증의 증상

안구건조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눈이 자주 시리며, 뻑뻑한 이물감이나 건조감 같은 증상을 느끼게 된다. 주로 모래알이 들어간 듯한 이물감이 느껴지고 실 같은 분비물도 나올 수 있다. 바람이 불면 눈이 시리거나 눈물이 쏟아지고, 자고 일어난 후에는 눈꺼풀이 달라붙어 잘 떼어지지 않아 불편감을 유발한다.

안구건조증이 심할 경우의 증상

안구건조증이 심할 경우에는 눈을 제대로 뜨기조차 어렵다. 특히 눈의 통증인 안통과 전신피로, 두통도 동반될 수 있다. 만일 안구건조증과 알러지성 염증이 동반될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통한 안약과 인공눈물 점안을 위해 병원 치료를 고려해야 하며, 안구건조증이 심한 경우는 만성적인 경우가 흔하므로 적절한 치료를 통해 증상을 빨리 호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구건조증의 원인

1. 고농도 미세먼지 영향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외출을 하면 눈이 뻑뻑하고 따가운 통증, 건조함,

눈의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고농도 미세먼지에는 유해물질과 각종 세균, 다량의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눈의 자극으로 눈 세포를 손상시키거나 안구건조증을 유발하게 된다.

2. 적정 습도를 조절하지 못하는 문제

건조한 환경은 눈의 피로를 생성하고 나아가 안구건조증을 유발한다.

특히 여름에는 에어컨을 통한 냉방, 겨울에는 히터가 만들어낸 건조한 환경에 장기적으로 노출되어 눈의 습도가 적절히 유지되지 못해 안구건조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습기 등을 이용해 적정 실내온도인 40~60%를 유지하고, 실내온도 20~22도를 유지한다면 안구건조증과 각막염 등의 발생위험을 낮출 수 있다.

3. PC, 스마트폰 사용 일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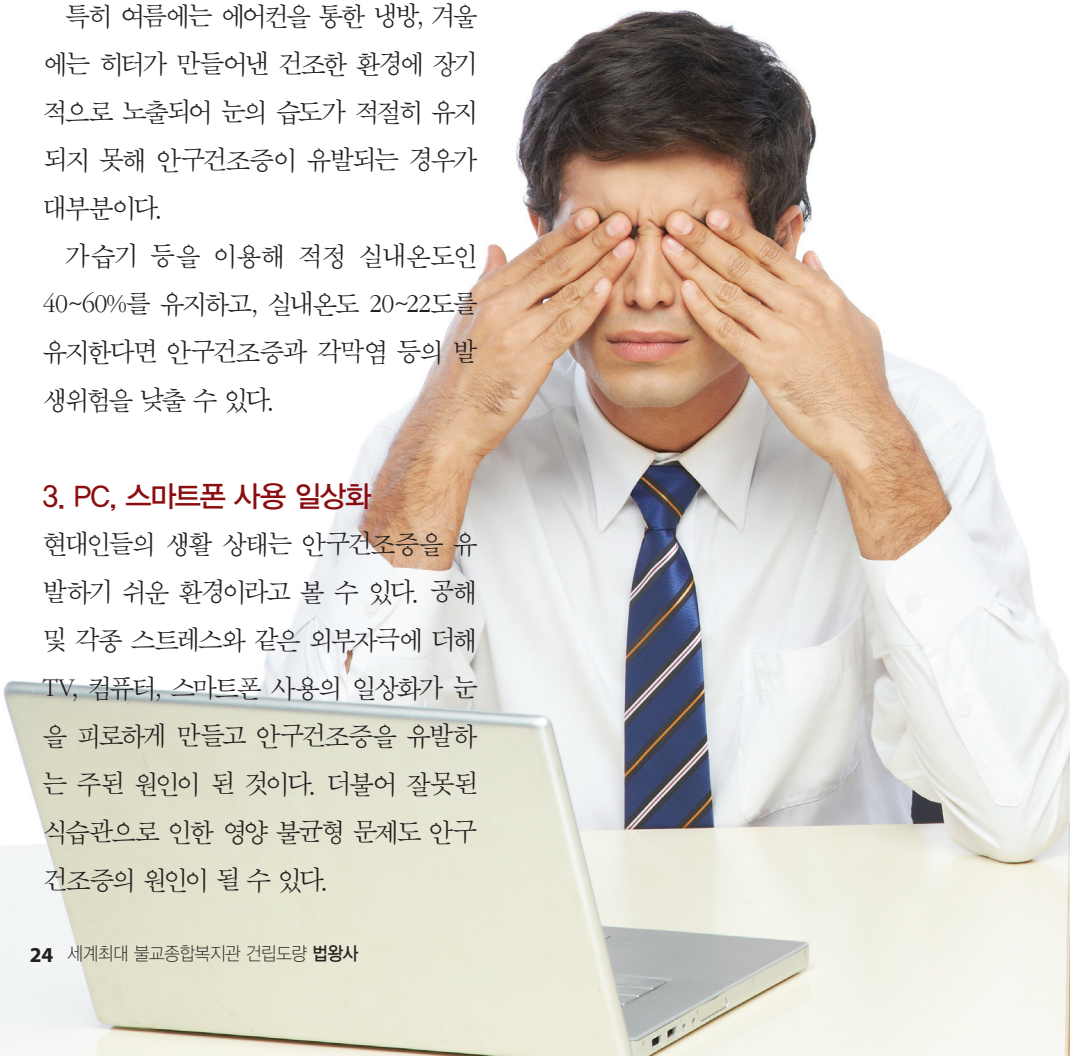
현대인들의 생활 상태는 안구건조증을 유발하기 쉬운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공해 및 각종 스트레스와 같은 외부자극에 더해 TV,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의 일상화가 눈을 피로하게 만들고 안구건조증을 유발하는 주된 원인이 된 것이다. 더불어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 문제도 안구건조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안구건조증 완화 생활습관

몸이 피로하면 휴식과 수면을 취하듯, 눈의 피로가 있다면 하던 일을 잠시 중단하고 눈의 휴식을 가지는 것이 좋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기를 쉼 없이 바라보면 눈의 근육이 경직되고 가까이 있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원근 조절 근육의 기능이 고정된다.

따라서 먼 곳을 수시로 바라보거나 5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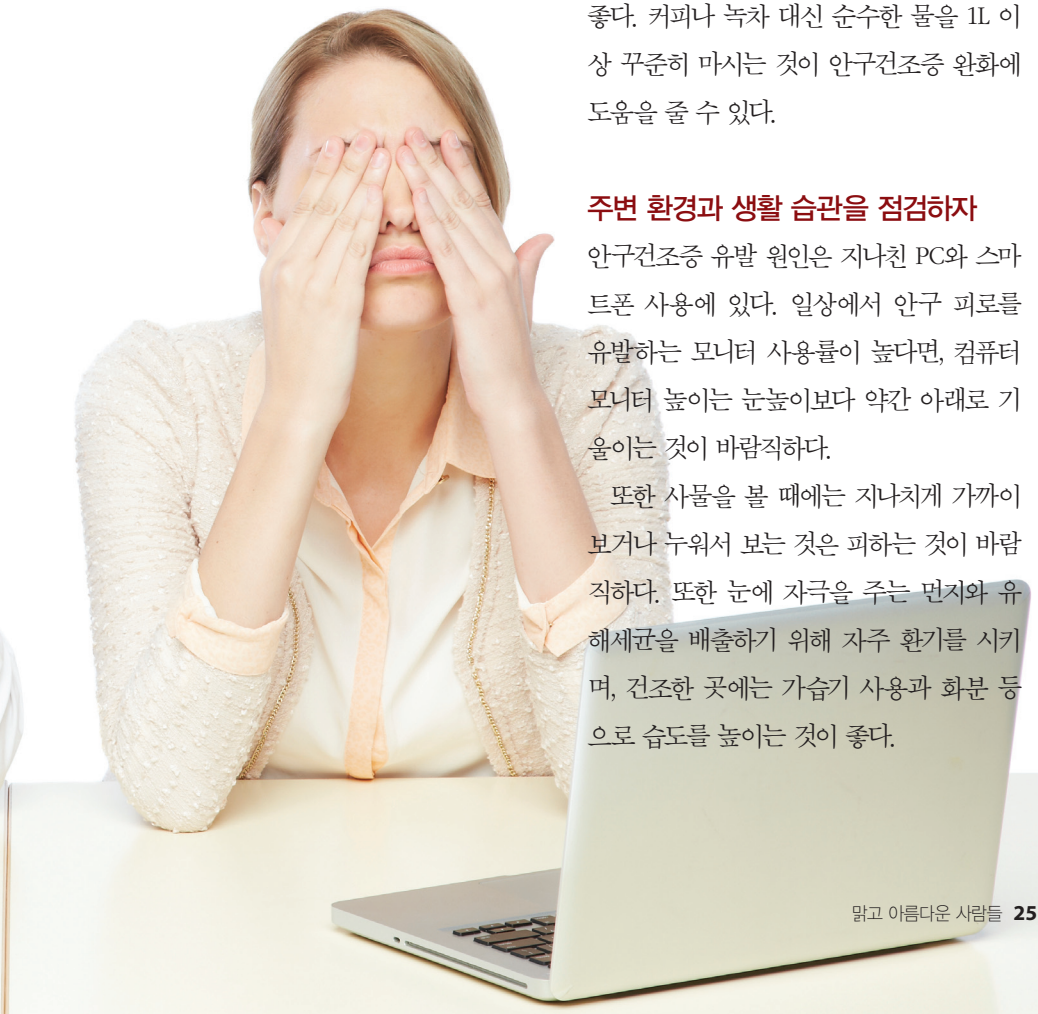


에 한 번씩은 10분 정도의 눈의 휴식을 가짐으로써 눈의 편안함을 선사하도록 하자.

눈 주위 혈점을 지압하자

자생한방병원 건강칼럼에 따르면 눈 주위의 경혈점을 지압하는 생활습관이 안구건조증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눈의 안쪽 구석, 콧대 사이에 있는 정명혈과 눈썹 안쪽 끝 부분에 위치한 찬죽혈, 눈썹 바깥쪽 끝에 위치한 태양혈은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대표적인 경혈점이다. 세 군데의 경혈점을 수시로 손가락으로 2~3초 반복해 눌러 주면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데 효과적이다.



안구건조증 예방법

커피나 녹차에 함유된 카페인은 이뇨 작용이 강해 체내 수분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카페인은 모든 질환의 전조 증상 치료에 있어 피하는 것이 좋은 성분으로 매일의 커피나 녹차 등의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다. 커피나 녹차 대신 순수한 물을 1L 이상 꾸준히 마시는 것이 안구건조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주변 환경과 생활 습관을 점검하자

안구건조증 유발 원인은 지나친 PC와 스마트폰 사용에 있다. 일상에서 안구 피로를 유발하는 모니터 사용률이 높다면, 컴퓨터 모니터 높이는 눈높이보다 약간 아래로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물을 볼 때에는 지나치게 가까이 보거나 누워서 보는 것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눈에 자극을 주는 먼지와 유해세균을 배출하기 위해 자주 환기를 시키며, 건조한 곳에는 가습기 사용과 화분 등으로 습도를 높이는 것이 좋다.

법왕사 소식

기해년 백중 및 우란분절 천도법회 회향

지난 6월 28일 입재한 백중(우란분절) 영가천도 49재를 8월 15일 회향하였습니다. 우란분절은 부처님의 제자인 목련존자가 지옥도에 떨어진 어머니를 천도하기 위해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리고 부처님과 스님들을 공양하여 어머니를 구했다는 유래를 가진 불교의 중요한 명절 가운데 하나로 불자들은 기도 기간 중 선망부모와 조상 및 수자령가들을 천도, 극락왕생을 기원하였습니다. 또한 49재 기간 중에는 지장보살 사불과 사경법회도 동시에 열어서 많은 불자들이 동참하였습니다.

삼사순례법회 회향

지난 7월 13일 제38회 백고좌법회 회향 기념 삼사순례법회를 전남의 명찰인 강진 백련사, 해남 대흥사, 미황사에서 봉행하였습니다. 이번 순례법회에는 1백여 불자들이 동참하여 남도의 유서 깊은 고찰인 이들 도량을 참배하여 매우 뜻깊은 행사가 되었습니다.

2019년 기해년 추석 합동차례 봉행

9월 13일(금) 오전 11시 대적광전에서 기해년 추석을 맞이하여 합동차례를 봉행합니다. 추석 합동차례는 집에서 차례를 모실 수 없는 불자나 특별히 불교식으로 차례를 올리고 싶어 하는 불자들을 위해 절에서 모든 음식을 마련하여 불교식으로 여법하게 봉행하는 것으로 명절은 물론 조상 영가천도에도 큰 도움이 되니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동참금은 영가 1위당 5만원이며 문의는 종무소 053-766-374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뜻깊은 추석날 선업정진으로 인연 영가님들의 행복한 마음이 펼쳐져 가내번영, 만사형통, 무량복덕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한편, 이날 차례에 봉사하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우담바라 합창단원 모집

법왕사 전속 합창단인 우담바라합창단원을 모집합니다. 합창단은 정무시 선생님기 지휘하는데 사중의 각종 행사에 음성공양을 하고 지역의 각종 불교행사에 참가, 합창경연대회에도 나가게 됩니다. 음악활동을 통해 여가선용, 신행생활까지 더욱 두텁게 할 수 있는 합창단 활동에 관심있는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연습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한편 거사들로 구성된 중창단도 모집합니다. 중창단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연습합니다.

대적광전에 냉난방기 설치

법왕사 대법당인 종합복지관 4층 대적광전에 천정 매립형 시스템 냉난방기 4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번 에어컨 설치로 108평 드넓은 법당이 외부 기온에 관계없이 사시사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불자들의 신행생활에도 큰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번 에어컨 불사에는 지장회, 신장회, 관음회 등 법왕사 신행단체와 불자등 40여분이 동참하였습니다.

2020학년도 수능 100일 관음기도 봉행중

법왕사에서는 2020학년도 대입 수능에서 고득점을 기원하는 '학업성취 발원 수능백일 관음기도'를 지난 8월 7일 입재하여 11월 14일 수능일에 회향합니다. 올해 수험생을 둔 불자님들은 영험 있는 기도 도량인 법왕사에서 100일 동안 관음기도를 정성껏 올리고 불보살님의 가피로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랍니다.

제3차 천일기도 봉행, 7월 17일 입재

2019년 7월 17일부터 2022년 4월 12일까지 제3차 천일기도를 봉행하는데 기도에 동참하실 불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가족기도는 입재미 10만원이며 기도비는 90만원인데 매월 3만원씩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법왕사에서는 이미 두 차례 천일기도를 여법하게 회향한 바 있으며 매 기도에는 1백여 불자들이 빠짐없이 동참하였습니다.

제39회 백고좌법회 봉행

8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100일간 100분의 고승대덕을 초청하여 법석을 펼치는 백고좌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백고좌법회는 법왕사가 지난 1992년부터 매년 두 차례씩 봉행하여 제39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입재일인 30일에는 양산 통도사 전 승가대학장이시자 반야암 주지이신 지안스님의 입재법문이 있을 예정이오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화강좌 난타 수업 신입생 모집

매주 화요일 오후에 열리는 난타 수업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강사는 김진규 선생님으로 수준 높은 강의를 진행하십니다. 연락은 법왕사 종무소(053-766-3747)이나 김진규 선생님(010-3217-3675로 하시기 바랍니다. 수강료는 3만원입니다.

사보 도움 주신 분

김이자 권영효 김종황 이원화

공양 올리신 분

◎ 대중공양 올리신 분

김태환 성재윤 오진환 윤윤근 김근태 김수란 김순태 김경자 심보현 신장회원일동

◎ 과일공양 올리신 분

양봉률 이종랑 박서빈 김근태 김봉원 김창용 권보형 박서빈 권혁만 진윤아 김의환 박진원 권혁만 김양순 이인태(백중 5재 일체) (주)세광하이테크 이정상 백중 영가 49재 과일공양 일체

◎ 떡공양 올리신 분

김위동 정영숙 안준영 권상태 양혜영 양혜진 박정숙 양봉률 양봉훈 신지원 이광진 이승현 이소원 정영선 배해동 이동학 방지현 김상한 정영숙 김위동 제갈욱 이상호 최남구 김임태 전정광 전숙환 이재학 유유남 류윤만 박해진 김호연 강성태 노기주 이광진 권중홍 옥영규 이종랑 김봉원 김창용 권보형 차점자 성재윤 황순녀 윤귀자 백대행심 정성덕화 사공순옥

◎ 공양미 올리신 분

심보현 김지운 정민수 서기원 신창진 이동학 김태훈 신창진 권중훈 양혜진 송영철 강숙희 박영승 김성훈 제갈욱 김호연 박남희 박세민 이정랑 이정자 조기수 한정수 김영홍 정효교 박대희 이재학 한선동 김말조 전순옥 이승재 한금엽 김상한 강정선 조현갑 김선우 양지영 이정란 신웅균 양혜영 여영동 김정남 여택동 남현우 김기수 하경순 나영연 최남구 백순도 김순자 김근태 이현자 이희동 신용흥 최말순 심재용 이재복 김두성 정성욱 정근순 김성민 김현준 이상호 이희동 정해용 임인환 박상익 고연숙 고제철 박경영 유명옥 이길우 송홍점 이무랑화 제갈경화 정성덕화

◎ 생일 공양미 올리신 분

김지윤

◎ 백중 공양미 올리신 분

김양순

◎ 법왕법요집 새발간 법공양 올리신 분

김종황 700,000 亡서복만 500,000
박세민 100,000 김광록 100,000 염길태 20,000
(주)정우유압 박기성 500,000
정진테크 장정향 500,000
장삼술 400,00 전숙환 60,000 장재혁 40,000
장재봉 40,000 앤디장 20,000 수자령연지 100,000
전효환 40,000 장승환 20,000 권순옥 20,000
이재복 200,000 김인화 100,000 강춘희 20,000
이마하심 100,000 백대행심 60,000 정성덕화 100,000
정순덕 20,000 장병근 100,000 亡백철기 50,000
亡염정희 50,000 문장호 100,000 김정호 20,000
김정남 300,000 이종랑 330,000 권상태 330,000
김봉원 330,000 양문갑 330,000 양영갑 330,000
김봉조 330,000 권오국 300,000

◎ 물품보시 올리신 분

김분용 김근태 전병혁 김천엽 임재형

◎ 삼사순례 공양 올리신 분

구실상화 김근태 방지현

불사 올리신 분

◎ 저금통 회향 하신 분

손영숙 김양순 박서빈 박정숙

법왕사 게시판

◎ 대등광적 인등 올리신 분
조춘권 조예성

◎ 산신인등 올리신 분
장재환 조영채

◎ 영가등(만불전 인등) 올리신 분
亡서복만 亡유갑용 亡김삼출 亡김종수
亡박자향

◎ 범종불사 올리신 분
권영효 김기수 권지현 권도형

◎ 33관음불상 올리신 분
윤태식 김동수

◎ 원불 올리신 분
亡노춘자

◎ 에어컨 불사 동참 하신 분(4층 대적광전 180평 법당)
신장회 500,000 지장회 500,000 관음회 500,000
홍분희 200,000 자비회 500,000 이영광 300,000
권순득 300,000 제갈욱 500,000 여보리자 20,000
장승환 30,000 김분용 10,000 방지현 20,000
유명륜행 20,000 전숙환 10,000 이금자 30,000
백분남 30,000 서금강심 20,000 무량화 10,000
이재학 20,000 이선덕화 10,000 일심법 30,000
본당일동 40,000 이정란 10,000 오난옥 10,000
지장회총무 10,000 보문지 20,000 김성행 20,000
화영 20,000 성재윤 500,000 백보현행 200,000
신지원 300,000 김수란 50,000원 심규웅 500,000원
김민지 35,000원 박두리 20,000원 신정욱 30,000원
정성덕화 100,000원 백대행심 50,000원
박정수(조보살) 100,000원

◎ CMS 올리신분
이영철 200,000 황금석 7,000 오현규 10,000
사공순옥 30,000 김연자 10,000 정재순 30,000
백승연 3,000 손향숙 20,000 성점순 10,000
김이규 6,000 이호진 10,000 한천숙 10,000
현미숙 20,000 송순분 20,000 김성미 5,000
김현숙 8,000 전재필 5,000 최진석 5,000
김제순 10,000 김옥자 10,000 전성복 10,000
정연이 8,000 장명희 5,000 안진미 60,000
서필희 10,000 황덕선 25,000 정연이 100,000
김명숙 150,000 김관용 5,000 김성자 10,000
전태일 50,000 조희선 20,000 김달준 20,000
강춘희 20,000 강유주 10,000 김명선 25,000
홍경숙 10,000 신정욱 20,000 류윤형 15,000
정순희 20,000 최종호 20,000 오창혁 10,000
신인숙 5,000 장미야 4,000 심영선 5,000
김수라 30,000

왕생극락하옵소서

- 亡 함원식 영가 기제사 6월 1일에 있었습니다
- 亡 김수근 영가 막재가 7월 7일에 있었습니다
- 亡 홍윤기 영가 초재가 7월 8일에 있었습니다
- 亡 함원환 영가 초재가 7월 8일에 있었습니다
- 亡 김두근 영가 기제사 7월 11일에 있었습니다
- 亡 이학수 영가 막재가 7월 11일에 있었습니다
- 김영애복위 천도재가 7월 12일에 있었습니다.
- 亡 박종태 영가 기제사가 7월 13일에 있었습니다
- 亡 이취근 영가 막재가 7월 14일에 있었습니다
- 亡 이재철 영가 초재가 7월 16일에 있었습니다
- 亡 김지구 영가 초재가 7월 20일에 있었습니다
- 亡 서복만 영가 초재가 7월 21일에 있었습니다
- 亡 김관음행 기제사가 7월 24일에 있었습니다
- 亡 이효식 영가 기제사가 7월 26일에 있었습니다
- 亡 조을선 영가 막재가 7월 27일에 있었습니다
- 亡 곽광영 영가 막재가 7월 28일에 있었습니다
- 亡 손성조 영가 막재가 7월 30일에 있었습니다
- 亡 하준성 영가 초재가 7월 30일에 있었습니다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해오름 요양원 소식

오카리나앙상블의 연주

오카리나의 아름다운 연주가 시작되고 맑고 고운 선율이 울려 퍼질 때 어르신들께서는 노래를 따라 부르시기도 하고 박수도 치시며 즐거운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어르신들의 마음을 즐겁고 행복하게 이끌어 주신 오카리나앙상블의 봉사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동그라미색소폰 공연

동그라미색소폰 봉사단이 색소폰연주와 노래등 다양한 공연을 펼쳐 주고 계십니다. 어르신들께서도 직접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시기도 하시고 박수도 치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어르신들의 마음을 즐겁고 행복하게 이끌어 주신 동그라미색소폰 봉사단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생신을 축하 합니다

7월에 생신을 맞이하신 문창옥, 허옥순 어르신의 생신잔치가 열렸습니다. 여러 어르신들과 선생님들께서 생신을 축하해 드리고 케이크와 다과를 나누어 드셨습니다.
어르신들 모두 건강하시고 만수무강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성시니어 공연

수성시니어공연단이 한국무용, 국악, 노래 등 다양한 공연을 펼쳐 주셨습니다.
어르신들께서도 직접 노래를 부르시고 박수도 치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어르신들의 마음을 즐겁고 행복하게 이끌어 주신 달성아리랑보존회 봉사단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개인 정기봉사자 | 무하스님(웃음치료), 지은정(미술치료), 이정신·신계영(마술공연)

| 단체 정기봉사자 | 동그라미색소폰공연단(공연활동), 달성아리랑보존회(수성구자원봉사센터), 수성시니어공연단(공연활동), HE봉사단(놀이치료), 더블유봉사단(놀이치료), 친한친구봉사단(놀이치료), 어린왕자봉사단(놀이치료), 그루터기봉사단(놀이치료), 오카리나앙상블공연단(공연활동), 일곱빛깔하모힐링니카공연단(공연활동), 우쿨렐레공연단(공연활동), 수선화(이미용봉사)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

◎ 수입내역

CMS(자동이체) 후원하신 분

김옥경	20,000	김용태	10,000	박희조	5,000
이정자	20,000	정경석	20,000	권오국	10,000
양희숙	40,000	박대희	5,000	김대현	5,000
김필남	20,000	이남희	10,000	정민경	10,000
이명숙	20,000	강소남	5,000	허유미	5,000
김명옥	20,000	박원태	15,000	남기웅	10,000
정숙희	20,000	유명옥	10,000	이정희	5,000
신귀화	20,000	호산반점	10,000	이전희	5,000
김순덕	20,000	(박남숙)		김원형	30,000
김양순	20,000	정인순	5,000	박순영	5,000
권순득	20,000	장시원	10,000	김진성	10,000
전효원	20,000	이정옥	10,000	이창수	10,000
진윤아	20,000	김민주	10,000	한규매	10,000
박정숙	20,000	박수진	10,000	정연이	5,000
김희영	20,000	김정숙	5,000	이인순	5,000
김진숙	20,000	정혜숙	10,000	김봉숙	5,000
석금옥	20,000	금명섭	5,000	오난옥	5,000
윤윤근	20,000	김기덕	20,000	이병희	10,000
황영희	20,000	최금부	10,000	신구자	5,000
홍애분	10,000	류혼자	5,000	조영석	10,000
김옥희	20,000	(지일)		김수라	10,000
최영희	20,000	박경란	10,000	최분규	10,000
강병철	10,000	권오관	20,000	양나영	5,000
고재욱	20,000	손수연	10,000	안명희	10,000
김만기	5,000	김수곤	5,000	김정규	5,000
박인철	10,000	이준우	5,000	김정순	30,000
안희선	10,000	조성자	5,000	정희수	10,000
서준석	10,000	권순미	10,000	강병철	10,000
(성인자)		조인성	5,000	여병문	10,000
이현옥	10,000	박경자	5,000	황미선	20,000
장우성	10,000	송정숙	5,000	정순옥	5,000
박정숙	20,000	박남희	30,000	신화식	10,000
엄희섭	5,000	권순영	10,000	최창숙	5,000
남길호	10,000	권순칠	10,000	장민석	10,000
최지희	10,000	박종규	10,000	장성규	5,000
정혜련	5,000	정명선	20,000	김미자	10,000
정영주	20,000	최영희	10,000	김경호	10,000
김경희	20,000	신충호	5,000	진봉희	10,000
최영희	20,000	최윤희	5,000	이호동	5,000
이성건	20,000	한희록	10,000	고연숙	10,000
성기옥	10,000	권춘자	30,000	정시영	10,000
서찬수	10,000	김경자	10,000	조규인	10,000
김명숙	10,000	이정희	30,000	사공관	20,000
문성섭	10,000	배하수	10,000	채옥연	5,000
홍기학	10,000	양혜진	10,000	배수현	20,000
박종환	10,000	이정화	10,000	신돈식	10,000
김숙희	10,000	김순연	5,000	여택동	5,000
이옥자	10,000	김미정	10,000	안경순	10,000
박성은	5,000	박성숙	5,000	류윤만	10,000
이승환	5,000	정옥수	5,000	심규암	5,000
김수자	10,000	용마관음사	30,000	김정자	5,000
유경희	20,000	박동규	5,000	김기수	20,000
(차목원)		이성환	5,000	구정대	20,000
권지현	20,000	반룡사	10,000	황내환	10,000
이정연	5,000	정경숙	10,000	장재혁	5,000
정태교	5,000	이용욱	10,000	이재봉	5,000
이복희	10,000	김외환	10,000	권영철	5,000

합계 : 1,890,000원

무통장으로 후원하신 분

박재용 3만원, 강미경 1만원,
임상덕 1만원, 이영주 3만원

◎ 지출내역

CMS수수료	: 44,000원
금융결제원요금	: 44,000원
SMS수수료	: 500원
케이크 구입비	: 76,000원
우편발송비	: 16,130원
물품구입비	: 495,120원
간식비	: 253,000원

총지출 : 928,750원

※ 해오름요양원을 위해서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월 사보를 통해서 수입, 지출내역을 상세히 기록할 것이며 남은 금액도 어르신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 해오름요양원에서는 후원자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CMS자동이체신청을 개설했습니다. 법왕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오시면 신청서가 구비되어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나누는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후원물품 보내신 분

백남현 어르신 보호자 (커피 1박스)

◎ 해오름요양원 신규 입소어르신

김영근 어르신

자원봉사자 모집

◎ 활동일시

– 매주 1~2회 14시~15시(시간, 요일 조절 가능)

◎ 활동분야

– 미술활동, 음악활동, 종이조형, 아로마요법, 생활체육, 요가, 민요, 원예, 다도, 놀이활동 등

◎ 신청방법

– T. 053-766-5767 담당 사회복지사 김필남
– 방문접수 법왕사 1층 요양원 사무실 (수성구 파동로 51길 96)

요양원 입소 안내

◎ 입소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으로 장기 요양 등급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어르신

◎ 입소시 준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건강진단서 1부

◎ 이용료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저소득층) / 국가유공자 본인부담금 10%
– 비급여항목(식대, 간식비) 별도 부담

◎ 문의

전화. 053)766-5767 팩스. 053)766-5095

후원안내

금품후원 새마을금고 9002-1643-4050-9 예금주 해오름요양원

물품후원 기저귀, 의약품, 세제류, 의복, 주·부식류, 생활용품 등

CMS자동이체 후원

법왕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구좌 5,000원부터)

후원업체 소개

하회물류(주)(www.hahoefood.com)에서는 매달 어르신들의 부식에 필요한 신선한 두부를 후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후원업체의 사랑과 나눔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독자 원고 받습니다

월간 법왕사보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투고와 사보를 읽은 후의 소감이나 각종 제언, 제안 등 후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제한이 없으며 신행생활의 체험담이나 수필, 기행문, 시 등 문학작품은 물론 사보를 보시고 난 후의 느낌이나 제언 등 무엇이든 보내주시면 선정해서 사보에 게재하고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원고 보내실 곳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법왕사내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편집실
전화 | 053-766-3747 팩스 | 053-767-6095

정기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월간 법왕사보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에서는 불자 여러분의 정기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1년 정기구독료는 2만원입니다. 구독 신청은 전화나 팩스, 직접 방문 등 어떤 방법이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시는 구독료는 사보 제작은 물론 불자들에게 불법을 전하는 법보시에 활용되는 등 큰 공덕을 쌓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법왕사 종무소로 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53-766-3747 팩스 | 053-767-6095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법왕사내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편집실

법왕불교대학 특강

법왕불교대학에서는 불자님들의 신심을 돈독히 하고 깊이 있는 불교 공부를 위해 '부처님의 생애'와 '아함경' 특강을 개설했습니다.
아함반은 30년 동안 아함경을 연구하신 제주도 연담스님을 초청, 2년에 걸쳐 아함경 전반에 대해 강의를 진행합니다. 또 부처님의 생애 강좌는 스리랑카에서 10년간 유학하면서 남방불교를 깊이 연구하고 귀국한 영일스님께서 강의를 하십니다. 관심 있는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아함경
연담스님 | 제주 천제사 주지
매월 둘째주 토요일 오후 2시

'부처님의 생애'
영일스님 | 법왕사 법사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불교기초강좌
실상스님 | 법왕사 주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법왕사 문화 강좌 개설

서각
- 강사 : **신임선 선생님**
- 약력 : 대구광역시 서예대전 초대작가
  죽농서단 이사
  남부도서관·북부도서관 문화강좌
- 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색소폰
- 강사 : **박성권 선생님**
- 약력 : 참사랑 색소폰 클럽 원장(현)
  참사랑 문화예술 봉사단 단장(현)
  달서구 찾아가는 문화마당 출연
  청송군민 위한 음악회 출연
- 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회비 : 3만원

난타
- 강사 : **김진규 선생님**
- 약력 : 대구 타악연구원 대표
  국악 모듬 북 최고 지도자
- 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 회비 : 3만원

봉사단체 자비회 회원 모집

법왕사에서는 사중에서 각종 봉사활동으로 보살행을 실천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활동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기도 후 법문을 듣고 공양 후 사중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자격 **남녀 구분 없음**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정기모임**
- 무료급식 **매주 수요일 11시 ~ 1시**
- 무료급식 동참 계좌
  대구은행 505-10-203686-3 자비회

법왕사 오시는 길이 변경되었습니다.

신천대로→신천좌안도로→법왕사로 오시던 길이 공사로 인해 이용하실 수 없게 된 관계로 **신천대로→상동교→수성못 오거리→용두교→법왕사**로 오는 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앞산터널 개통으로 범물동에서 법왕사까지 7분, 상인동 터널 입구에서 법왕사까지는 11분으로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신천좌안 고가도로 완공시까지 네비게이션으로 '파동초등학교'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나라의 안녕과 번영,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제39회 경율론(經律論) 삼장(三藏) 백고좌대설법회(百高座大說法會)

법왕사에서는 제39회 백고좌법회를 2019년 8월 30일부터 2019년 12월 7일까지 봉행합니다. 백고좌법회란 100일 동안 100분의 고승대덕 스님을 모시고 사자좌를 차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연속으로 설법회를 여는 것으로 신라 진흥왕 때에 처음 열린 이래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 성행하다가 조선시대에 그 맥이 끊어진 것을 1995년 법왕사에서 복원하여 오늘이 이르고 있습니다.

증명 : **중심문도회 회주 학송 심경스님**
대한불교조계종 법왕사 주지 **如是 實相** 합장

• 1일차
8월 30일
입재법문
지안스님
양산 통도사
前승가대학장

• 9일차
9월 7일
법화경
7. 화성유품
동봉스님
광주 우리절 주지

• 87일차
11월 24일
음악회
보현스님
부처님마을
선원장

• 100일차
12월 7일
회향법문
암도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前포교원장

▶ **8월 30일 입재시 특별공연 :** 진각종 금강합창단(김진규외 4인), 난타공연

회차	날 짜	법사스님	약 력	회차	날 짜	법사스님	약 력
1일차	8월 30일 金	지안스님	양산 통도사 반야암 주지	13일차	9월11일 水	일우스님	대구 성관음사 주지
2일차	8월 31일 土	등현스님	의성 고운사 화엄승가대학원장	14일차	9월12일 木	추석연휴	
3일차	9월 1일 日	덕문스님	통도사 영축율학 승가대학 원장	15일차	9월13일 金	추석	
4일차	9월 2일 月	혜조비구니스님	서울 관음사 주석	16일차	9월14일 土	추석연휴	
5일차	9월 3일 火	경성스님	합천 해인사 율주	17일차	9월15일 日	추석연휴	
6일차	9월 4일 水	동훈스님	대구 삼보사 주지	18일차	9월16일 月	법장스님	해인 승가대 교수사
7일차	9월 5일 木	정원스님	봉선사 능업학림 학장	20일차	9월18일 水	노휴스님	공주 행복도량 주석
8일차	9월 6일 金	보일스님	해인사 승가대학 학장	23일차	9월21일 土	여현비구니스님	서울 동국대 교수
9일차	9월 7일 土	동봉스님	광주 우리절 주지	24일차	9월22일 日	대주스님	부천 대륜사 주지
10일차	9월 8일 日	지광스님	대구 보현사 회주	27일차	9월25일 水	현웅스님	서울 육조사 주지
11일차	9월 9일 月	종인스님	동화사 승가대학 학감	31일차	9월29일 日	주지스님	법왕사
12일차	9월10일 火	해월스님	팔공산 반조암 주지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3747 F. (053)767-6095
www.bubwangsa.or.kr

한결 같은 마음 **해오름요양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96
T. (053)766-5767 F. (053)766-5095
www.silver79.kr